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자기를 이끄는 원동력인 자기 뿌리를 믿고 의지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습으로는 한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여러분께서 마음을 이어 가신다면 나도 또한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도, 만불(萬佛)이 일불(一佛)이고 일불이 만불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불성 자체, 주인공에 한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새 법당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지붕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흐뭇하시죠? 나도 여지껏 둘러 보지는 않았는데 지붕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집은 그렇게 짓고 산도 또 저렇게 있는데 사람이 인생 길을 걷고 또 걷고, 그 래도 그 집은 남아 있고 그 산은 남아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청법가에도 있었지만 '새 인연을 이어 서 해 달라'고 그랬죠? 그것은 항상 마음이 이어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어서 먹고 그 이듬해에 씨앗을 또 심어서 먹듯이, 그것이 끊임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즘 조계종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셨 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부딪 치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고 계발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걸 보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지혜를 넓히고 공부 를 하는 뜻이니까 그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 십시오. 인간의 두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 니다. 발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 리 두뇌의 근본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부딪침이 없고 상대가 없다면 우린 발전을 못 합니다. 차를 아무리 새로 사 놔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소용도 없는 차가 되구요. 그와 같이 인간 은 부딪침에 의해서 다 키치고 발전을 하고 그러 는 거죠.

그럼으로써 '스님네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아서 그럴까. 다 때려 죽여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발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모두를 보고서 우리가 공부하니 그분들도 역시 스승인 것입니다. 장마가 드는 걸 봐도 스승이요, 물이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돌이 있는 걸 봐도 스승이요, 꽃이 피는 걸 봐도 스승이요,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체 만물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가 넓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잘못 나가거나

잘 나가거나 하는 양면의 문제가 있죠. 참담하게 물 리가 터져서 잘 나갈 수 있는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나가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사고도 많이 날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이 점심을 굶는다는 거든가 또는 너 무 실직자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든가 하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웃은 누더기를 입었어도 먹고 살 아나갈 수가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틀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 원인이 어 났느냐? 이것은 우리가 자기 뿌리를 모르기 때문 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느라고 이렇게 이 말 저 말 끌어다 대는데요, 자기의 뿌리를 의지하고 믿 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 자기를 믿 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 자기가 자기 불성인니까 요. 그것은 한 해 두 해, 또 한 생 두 생만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나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수 억겁 전으로부터 이끌어 온 장본인인 바로 근본 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제하게 팔정도니 육바라밀이 니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구 령이 담 넘어가듯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거나, 이 런 게 아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엄보가 '있 다'고 한다면 엄보가 있게 되고 소멸이 안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생 각을 그냥 하고 사느냐, 한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자기 혼자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몸에서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다 같이 해 주기 때 문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걸 알면 한생각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생각이 되 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그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쌓은 습을 어떻게 단번에 소멸을 시 킵니까? 철회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또 일을 저지 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은 시지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의 원 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직여주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니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겁 니다.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모든 거, 일거수일 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겨라, 이러는 겁니다. 웬 줄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쌓은 습관과 업장이 너 무 두터워서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는 그 방법 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걸 갖다가 관하고 놓 으면 그거는 소멸이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까 이 루어지는 겁니다. 소멸이 안되면 그게 이루어지 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영가 천도를 하러 와도 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숨어 있을 경우 그

숨어 있는 거를 다 끄집어 내서 해 줍니다.

그런데 부모의 천도, 이것은 부모의 업장을 모 르고 그대로 하면 빠진 게 많아서 그 업장의 요 소들이 다 녹아지질 않죠. 그러니까 그 조상님들 이 제대로 천도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마져 해 달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중생 이라고 할 것도 없다. 부처라고 할 것도 없다. 당 신네들이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보현신이고 그대로 부처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직여줬다 하면 보현신이다. 보 현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모든 걸 감싸고 움 죽거리 주는 게 보현신이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법신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 처님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 한 생애 빨리 깨쳐서 다 소멸시키지.' 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런데 소멸이 되면서도 또 공덕이 되는 것은 뭐냐. 거기다 자주 입력하면 소멸이 되니까 공덕 이 되는 거죠. 업적과 업보와 업력이 다 소멸되니 까, 자꾸자꾸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집안이 조금 편안해지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스 스로 느끼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부 처님 법이 요만큼도 예누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을 이 세상 일체 만물의 부처님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일체 만물도 다 연결이 되니까요. 알고 보면 아주 요만큼도 예누리 없는 것이 자기 의 마음이죠. '야호' 하면 자기가 '야호' 한 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한테 들리듯이, 내가 마음 을 냈을 때,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상대에게도 다 퍼져서 알게 돼요. 그래, 어떤 사 람이 뇌물을 갖다 주니까 받지 않더라고요. "아 무도 없는데 좀 받으시지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빨리 지혜롭게 공부하시려면, 내 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점포해서 넘어가도 된다. 수상행식이라는 것도 첩보해서 원심으로 만들어라." 첩보하면 그거를 다 뛰어넘는 거죠. 원심이란 쉽게 말하자면 공식 (公式)이죠. 한데 합쳐진 한마음을, 의식을 말하 는 거죠.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살 아나가는 것을 한데 합쳐서 무(無)의 세계나 유 (有)의 세계를 대척해 나가는 것을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수상행식이 따로 있습 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업보도 있고, 잘못하는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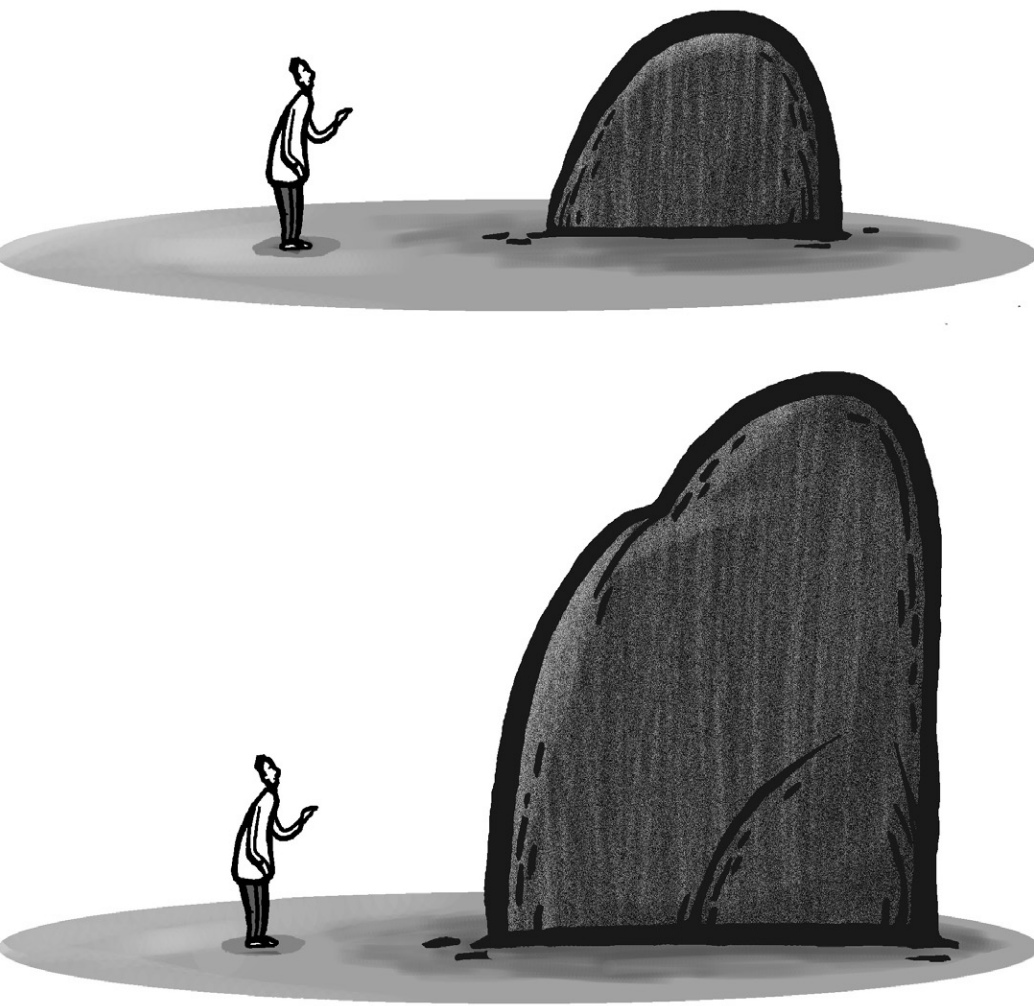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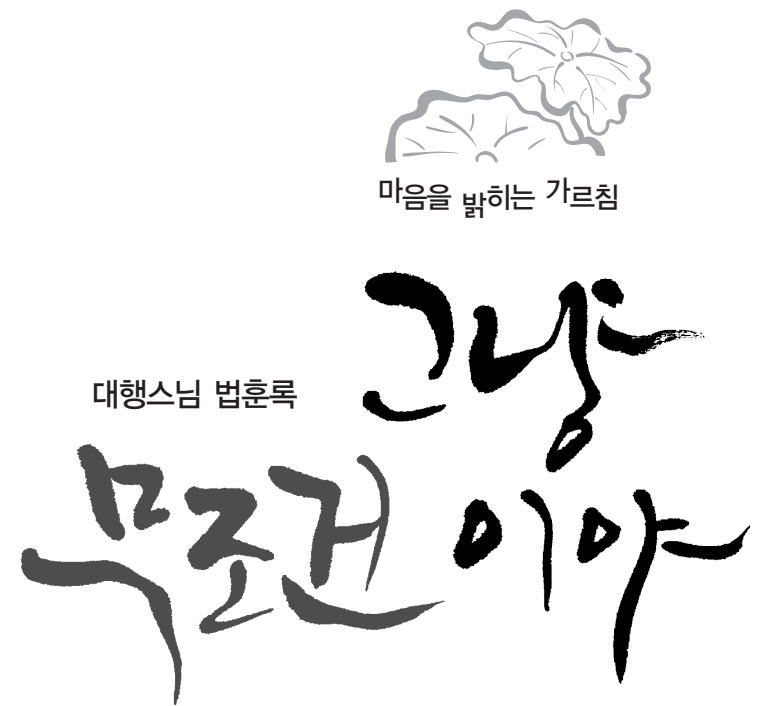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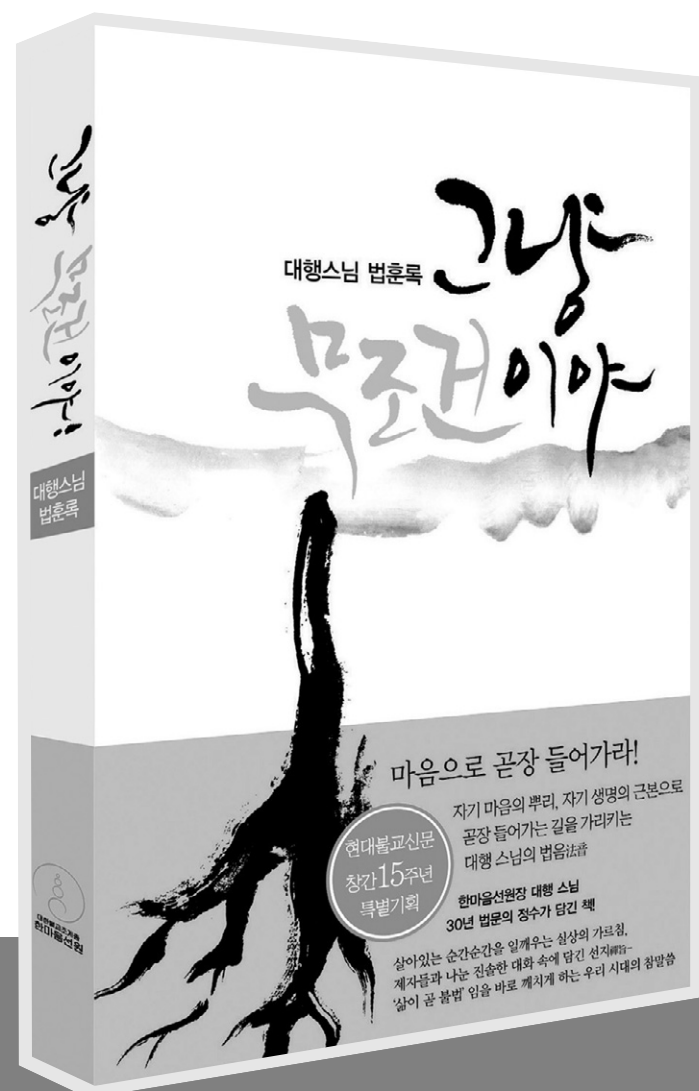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현대불교신문 창간 30년 법문의 정수가 담긴 책

삶이 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찬송의 거장인,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